

메시지 2

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

성경: 벧전 1:17, 2:21-24, 4:17-19, 5:6

I.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관한 것이다.

- A.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며,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— 벧전 1:2.
- B.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이며,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— 벧후 1:1-4, 3:13.
- C.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통치하신다.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— 벧전 1:17, 4:17.
 - 1.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책이므로, 이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심판이 필수적인 항목들 중의 하나로서 반복하여 언급된다 — 벧전 2:23, 4:5-6, 17, 벧후 2:3-4, 9, 3:7.
 - 2. 주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심판을 통하여 우주 전체를 말끔히 치우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얻으심으로써,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의로 충만한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— 벧후 3:13.
- D.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 심판은 아버지께 의해 수행되는데, 이것은 장래의 심판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현재의, 매일의 심판이다.
 - 1. 아버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,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한 자녀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가족을 산출하셨다 — 벧전 1:3, 15, 17.
 - 2. 거룩한 자녀들인 우리는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(벧전 1:15-16). 그러지 않으면,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루실 것이다(벧전 4:15-17, 히 12:9-10).
- E. 하나님의 통치에서 징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— 벧전 4:17.
 - 1.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.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매일의 심판 아래 있다 — 벧전 1:17.
 - 2.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의 심판을 하실 때 불같이 혹독한 시련을 사용하심으로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데, 이러한 심판은 그분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— 벧전 4:12, 17.
 - 3.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다 — 벧전 4:6.

II. 베드로의 서신서들이 귀중한 까닭은 이 서신서들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쌍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— 벧전 1:17, 2:21, 24, 3:15, 4:17, 5:5-8.

- A.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긴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.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— 요 1:14, 14:17, 고전 15:45하, 6:17.
- B. 동시에 삼일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— 벧전 4:19.
- C.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고 새 창조물이 되었지만,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있다 — 요 1:12-13, 3:3, 5-6, 고후 5:17.
 - 1.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름이 필요하다 — 벧전 1:17.
 - 2.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징계가 필요하다 — 벧전 2:2, 4:17, 벧후 1:5-7.

Ⅲ.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간 생활을 하였고,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셨다 — 요 6:38, 뱀전 2:21-23.

- A. 주님은 그분 자신께서 받으신 모든 모욕과 상처를, 의롭게 심판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신 의로우신 하나님께 계속 맡기시고,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. 주님은 이러한 의로우신 분을 신뢰하셨고 그분의 통치를 인식하셨다 — 뱀전 2:23.
- B.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조언해 주셨을 때,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접촉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속부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그분을 가르쳤다 — 시 16:7, 사 50:4.

Ⅳ.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 — 요 3:15, 1:12-13, 뱀전 4:13-19, 5:6-8.

- A. 베드로의 서신서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집행하시는 통치적인 처리를 우리가 능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— 뱀전 1:6-8, 2:3-4, 19, 21-25, 3:18, 22, 4:1, 15-16, 5:8-9.
- B. 우리는 체류자로 사는 동안 거룩한 두려움으로, 곧 건강하고도 진지한 신중성으로 지내야 한다. 이러한 신중함은 우리를 이끌어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한다 — 뱀전 1:15, 17.
- C.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— 뱀전 5:6.
 - 1.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오는 '하나님의 권능의 손'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다스리는 손을 가리킨다 — 뱀전 1:17, 4:17.
 - 2.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.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운행과 협력하여,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 — 뱀전 5:6.
- D. 우리는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한다 — 뱀전 4:19.
 - 1.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보존하실 수 있고, 하나님의 애정 어린 신실한 돌봄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 안에 있는 공평함과 더불어 수행된다.
 - 2.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신다. 우리는 그분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, 우리의 혼을 우리의 창조주의 신실한 돌봄에 맡겨야 한다 — 마 10:28, 11:28-29.
- E.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들에 대하여 죽은 것은,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— 뱀전 2:24.
 - 1. 하나님의 통치는 의 위에 세워진다(시 89:14상).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.
 - 2. '의에 대하여 산다'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요구들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다 — 뱀전 2:24.
 - a.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롭게 살도록, 즉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운 요구들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살도록 구원받았다.
 - b.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들에서 분별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살아남으로써,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— 롬 6:8, 10-11, 18, 엡 2:6, 요 14:19, 딤후 2:11.